

구라보 - “허브” 섬유와의 면 혼방사 개발

구라보의 애히메현에 있는 호조 공장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허브(herb)인 라벤더(lavender : 꿀풀과에 속하며 향료, 한약제용)의 줄기나 레몬 그라스(lemon grass : 운향과에 속하며 향료용)의 잎에서 뽑은 섬유와 면의 혼방사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여 상품화하였다. 구라보의 리빙제품과는 이 혼방사로 만든 천을 2006년 춘하절 생활 잡화 소재로서 판매할 계획이다.

호조 공장은, 향신료의 원료로 향료를 뽑기도 하고, 요리나 차에 사용하거나 실내의 향으로 잘 사용하고 있지만, 방적용 섬유로는 알려져 있지 않은 허브 식물의 줄기나 껍질, 잎에서 뽑아낸 섬유로 특수한 실을 방적하는 고유 기술로 잘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녹나무과의 월도의 줄기 섬유가 어망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줄기 섬유로 방적사를 뽑는 데도 성공하였다.

라벤더와 레몬 그라스는 면과 20% 혼방사로서 중심 변수는 모두 20수 단사를 주로 뽑고 있다. 라벤더는 홋카이도를 위시한 일본 각지의 허브 농장에서 수집하고 있으며, 향기가 좋은 라벤더 기름은 천에도 가공하고 있다. 레몬 그라스는 아시아의 열대 지방에 자생하고 있으며, 레몬의 향기가 좋다.

리빙 제품과는, 이들 실로 짠 천을 “향직포” 브랜드로 상표 등록을 신청 중이며, 2004년 5월에 개최된 소재전에 발표하여 호평을 받았다.